



[금융] 신한금융그룹 17주년 60조 자산규모 '공룡 보험사' 탄생 임박 06



Life

[공기업] 마사회 테마파크 추진 과정 부적정 사례 드러나

L6



난민 살리고 이웃 돕고... 희망 불씨 지피는 '옷의 힘'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99 유니클로

매년 3만여장 의류 '리사이클' 의류 기부받아 난민 캠프 전달

보육원 아동 의류 쇼핑 이벤트 장애인 고용 창출·지원 앞장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소외 계층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 문제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다.

소비자들로부터 기부 받은 의류를 난민 캠프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그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3일 "유니클로는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옷의 힘을 사회의 힘으로’라는 스테이트먼트 아래 전세계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

유니클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은 전세계 진출국 매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기부 받은 유니클로 의류를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난민 캠프로 전달하는 글로벌 CSR 프로그램이다. 유니클로는 UNHCR과 글로벌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8월 기준 65개 국가 및 지역에 약 2558만장의 의류를 전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매년 3만여 장의 의류를 전세계 소외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서울시 및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했다.

◆개점경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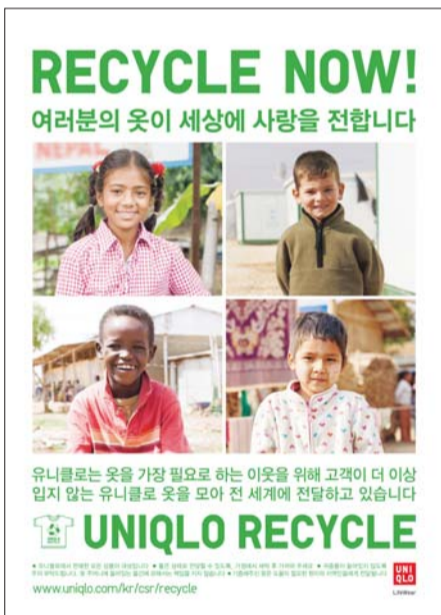
유니클로는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상황과 특징을 반영해 각 매장이 주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점경영'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유니클로 매장이 '포항장성점'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점포설계팀과 연계해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피난안내도 및 소화기 안내문을 점내에 설치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소방관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포항시청과 연계해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장성점은 고객에게 기부 받은 유니클로 옷을 업사이클링해 지진방재매트를 제작, 포



유니클로는 보육원 원아들에게 매장에서 직접 옷을 고르고 구매하는 쇼핑 경험을 지원하는 '보육원 아동 쇼핑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 포스터.



유니클로의 '장애인 학생 일 배움 프로그램' 현장.



유니클로 명동중앙점 내 전상품 리사이클 캠페인 홍보 존.



유니클로가 지난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공동 주최한 '2017 대전 Together We Walk' 현장.

항 시청과 함께 포항지역의 장애인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소외 계층 및 아동 지원

유니클로는 지난 2013년 6월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업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 및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어린이재단에 총 4억6800만원을 기부했으며, 해당 기금은 저소득 가정 내 56명의 예체능 인재들의 교육비로 사용됐다. 또한 2017년에는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아동들

이 재능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U dreamer' 사업을 출범하기도 했다.

'보육원 아동 쇼핑 이벤트'는 지난 2013년 12월 처음 시작된 것으로, 유니클로가 후원하는 보육원 원아들에게 매장에서 직접 옷을 고르고 구매하는 쇼핑 경험을 지원하는 행사다. 해마다 행사 횟수 및 실시 지역을 확장하며 보다 많은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80명의 아이들에게 의류를 선물했다.

◆장애인 고용 및 스포츠 활동 후원

유니클로는 한 점포당 1인 이상의 장애

인 직원 근무를 목표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을 위해 지난 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5월 기준 전체 직원 4300여명 중 108명 장애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9%를 훌쩍 넘는 4.1%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외투기업 CSR 사례공모' 고객부문 수상기업 선정에 이어 2014,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각각 '장애인 고용 촉진 유공자

부문 이사장상'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년 8월에는 2014년에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재선정됐다.

유니클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표로 고용 창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장애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 중이며, 지속적인 기여를 인정 받아 지난 1월 '스페셜올림픽 시상식'에서 후원단체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에도 약 2억원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을 지원했다.

아울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 대회인 'Together We Walk'을 공동 개최하고 행사 개최 지역을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로 넓혀가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휠체어 테니스 선수 고든 레이튼과 쿠니에다 신고가 유니클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류 기부

유니클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2016년에는 서울시 주관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에누리 기업)'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2015년부터 작년까지 약 5억3000만원 상당의 상품 및 기부금을 후원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2017 서울에너지복지 나눔대상'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여름에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으로 구성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기능성 이너웨어 '에어리즘(AIRISM)'과 반팔 티셔츠 총 1만4000장을 기부했다.